

■ 법원, 제주시 상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교통난 해소 비책 '렌터카 총량제' 위기

“제주특별법 시행 전 렌터카 증차 신청 거부는 위법” 승소 업체 30억대 손배소 제기... 민사소송 이어질 듯

행정당국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지침을 근거로 렌터카 증차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 21일 시행되는 데, 제주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그해 4월 24일과 4월 26

일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 11일과 7월 27일 추가로 낸 증차 신청을 제주시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지난 2018년 3월 19일 렌터카 161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그해 4월말 증차를 반려했다. 제주도가 긴급 지침 형태로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의 경우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의 경우 23㎡에서 26㎡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제동을 걸기 위해 그해 3월 부랴부랴 강화된 지침을 만들었다. 그해 3월 열흘간 제주도에 접수된 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 신청 규모는 3472대로, 통상 한해 접수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제주도는 심의 끝에 증차 신청 3472대 중 91.5%인 3178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증차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제주스타렌탈처럼 당시 증차를 거부 당했던 나머지 업체까지 행정 소송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행정소송법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줄줄이 번질 가능성은 있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제주시가 증차를 거부해 영업 손실을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리 손해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도교육청 시설비 조기집행 나선다

내년 2월까지 88% 집행 “교육·지역 동반성장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비 조기 집행에 나선다. 매년 시설비 집행 부진으로 인해 전체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전체 시설사업비 3116억원의 72%인 2249억원을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내년 2월 겨울방학까지 집행 목표율은 88%이다. 지난 한 해 교육청 시설사업비(3924억원)의 46.2%(1814억여원)만 쓰인 것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집행률을 30%p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시설사업 조기 발주에 나선다. 이달 10일까지

공사 12건, 설계용역 101건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사업의 83%를 발주하기로 했다. 조기 발주하는 시설 사업에는 교실 증개축(809억원), 다목적강당 증개축(866억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159억원), 석면합유시설물교체(131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학교 공사의 기성금과 선금금도 1월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106곳이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비를 알맞은 때에 집행하지 못해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역의 동반 성장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해경, 설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 행위 ▷해양중사자 폭행·노

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7년 5건(5명), 2018년 20건(22명) 그리고 지난해 17건(23명)의 조업금지 불응 사기 행위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 행위 ▷해양중사자 폭행·노

대상포진 예방 무료접종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제주도민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주민등록 상 주소에 주소와 주소주소를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들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흉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하여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이다. 면역력이 저하된 연령층에 취약한 질병이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도 증가한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남원읍 비닐하우스 화재

8일 오전 9시1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 사진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우스 비닐 일부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27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다시 겨울... 완전무장한 어르신들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온 8일 제주시 중앙로 버스승차대에서 어르신들이 몸을 움츠린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사고 줄이자”... 시설개선 451억 투입

도, 도로 보수·도색 등 실시

제주도는 올해 구국도 및 지방도 18개 노선에 451억원을 투자,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주요사업을 보면 ▷도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시설·안개 등·가드레일 정비(97억원) ▷노후된 포장도를 보수하는 덧씌우기사업(76억원) ▷도로폭이 좁거나 굴곡,

중단 구배가 심한 도로 등 취약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구조개선사업(7개소·64억원) ▷퇴색된 차선을 정비하는 차선도색사업(29억원)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교차로를 정비하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6개소·21억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사업(16개 노선·18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야간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밝은 도로 조성사업'에 376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중 129억원을 투입해 가로등(보안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로 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 2018년 82명에서 10명 이상 줄어든 수치이며, 2009년 63명 이후 10년 만에 6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송은범기자

올해도 제주해녀 '항일 함성' 울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에서 제주해녀항일운동 제88주년 및 제26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강강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에서 추모제를 거행한 후 해녀, 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당시 제주해녀들의 항거상황을 재현하는 상황극 및 거리행렬을 진행한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1931년부터 1932년까지 구좌, 우도, 성산 등 동부지역 해녀들이 일제의 식민지 경제수탈정책에 반발해 벌인 국내 최대 여성 항일운동이다. 참가자만 연인원 1만7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8년 9월 제주해녀항일운동 애국지사 주요 3인(부춘화·김옥련·부덕량 열사)의 흉상이 제작·설치됐고, 같은해 12월에는 해녀항일운동의 주요 거점지 4개소에 표지석이 세워졌다. 송은범기자

4만원 할인!
정품 필터 증정

방수 IPX5

만유 직관 500만원 상당

BD-N443

겨울 필수품 비데 할인 혜택받고,
만유 직관의 행운까지!

12월 24일 - 12월 31일

BD-N443

방수 비데
특기 할인판매
노비타 컴포트 비데

정품기 299,000원
할인 판매가 **259,000원** [4만원 할인]
[무료 설치 서비스]

인기 모델 파격 혜택!
1년치 정품 필터 [2개]

BD-N443의 주요 기능!

- feature 01 혁신적인 설계로 방수와 탈취 기능이 동시에 분체 IPX5 / 리모컨 IPX7
- feature 02 인체공학적 설계 곡면 디자인 시트
- feature 03 한번의 조작으로 세정과 마사지를 동시에

노비타 구매 이벤트
**박지성도 만나고,
만유 직관의 행운까지!**

응모방법 : BD-N443 구매하고 홈페이지 응모
응모기간 : 12월 24일 - 12월 31일
당첨자 발표 : 1월 6일 (개별 통보)

만유 직관 행운	에어팟 2세대
1명	10명
맨체스터 맨체	2020년 1월 17일
15명	박지성 팬미팅
	200명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
목적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다
노비타 라인핏

☆3년 무상 A/S☆

BD-AFE50N 229,000원

3way 노즐

BD-AE91 269,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신광로터리 ● 빙스 ● 오양병원 ● 마린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 공항